

추석 연휴 광주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멈춰... 행정 처분 예고

운전 미숙 원인... 모노레일 옮겨 타 인명 피해 없어 관리부실·노후화로 잇단 사건·사고, 대책 마련 시급

추석 연휴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에서 가동중이던 모노레일이 멈춰 탑승객들이 불안에 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정당국 차원의 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고질적인 관리 부실과 노후화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에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에서 '모노레일'이 멈춰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탑승객들은 뒤따라 출발한 다른 모노레일로 옮겨 타 정류장에 도착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모노레일에는 16명이 타고 있었다.

동구는 소방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사고는 모노레일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동구는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7일까지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 점검 결과 안전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운행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에서는 노후화와 충전 불량 등으로 인한 멈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80년 9월 최초 운영을 시작한 모노레일은 현재 총 2대가 정류장과 무등산 팔각정을 오가고 있다. 해발 약 350m 산비

탈 위 최소 4m~최대 20m 높이에 설치된 714m 레일을 30분 단위로 왕복 중이다. 2005년 경영상 이유로 폐업했다가 2016년 지역 한 호텔 운영 업체가 인수해 재개장했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인한 멈춤 사고가 잇따르고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불안이 겹치면서 재정비가 시급하다.

지난 2023년 11월에도 가동 중이던 모노레일이 5m 높이 경사로 레일에서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 탑승객 18명이 2시간 19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당시 사고는 모노레일 배터리 충전 불량으로 파악됐다. 모노레일 운영 권장 전압은 56V(볼트)로 가용 전압이 46~47V일 때 작동을 멈춘다. 사고 모노레일의 운행 전압은 48V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돼 인명구조가 이뤄진 사건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내려졌던 행정처분을 어기고 운영을 이어간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업자가 고발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시정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된 사고에 기초의회 차원의 지적도 있었다. 박현정 광주 동구의회원은 지난해



열린 행사사무감사에서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에 대해 민간합동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 민원이 여전하다"며 "분기별 점검 외 민간합동 점검 정례화 등 차별화된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동구는 최대한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안전보건진흥원을 통해 꾸준히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안전 점검 결과 전선 정리와 녹슨 기기·배터리 교체 등 개선 요구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개선 사항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꾸준히 조치 중이다. 행정당국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취업하러 캄보디아 간다” 연락두절... 전남서도 실종신고

전남에서도 캄보디아 등 해외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등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A(30대)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여수경찰서로 접수됐다.

올해 5월 태국으로 출국한 A씨는 가족에게 “아는 형과 취업을 위해 캄보디아로 넘어간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지난 5월 태국 출국 30대 연락끊겨... 여수서 접수 광주 3명·전남 1명 등 4명... 경찰, 소재 파악 주력

앞서 광주에서도 해외로 나가 연락이 끊긴 20대 남성 3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올해 6월 태국으로 출국한 B(20대)씨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C(20대)가 연락이 닿지 않

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B씨 가족들은 최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살려달라’는 음성을 들었다며 B씨의 납치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B씨가

광주시에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컨설팅에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일반음식점 152개소, 휴게음식점 80개소, 제과점 10개소 등 총

광주 음식점 242곳 위생 강화한다... “맞춤형 현장컨설팅”

24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후에는 업소별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위생등급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조리장과 객석의 청결 상태, 조리·보관

기구 위생, 배달 및 공유주방 관리, 푸드테크 로봇 위생관리, 폐쇄회로(CC)TV 등 조리장 내부 공개 여부 등이다.

컨설팅 결과 적합업소는 식약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위생등급 지정을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씨는 올해 1월 가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에도 “올해 4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20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외교부에 재외국민 체류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의 최근 행적을 들여다보는 한편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집단 피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원철 기자

신청할 계획이다.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062-525-9775

광주 5년간 초·중·고생 ‘자살’ 33명

박미정 광주시의원, 시정질문에서 지적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 지표가 부재” “성인지 감수성, 관계교육 체계적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광주시의원(동구)은 14일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학폭) 대응이 미흡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초·중·고생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며 “시교육청의 상담·치료 연계 체계만 있을 뿐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 지표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의 반복이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 생명과 정서 안정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6%(초등학생 5.3%)로 지난해 2.0% 대비 상승했다”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교실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정과 피해 학생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708건(광주경찰청 기준) 중 성폭력 범죄가 24.4%(173건)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 성폭력 가해 건수가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범죄의 52.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과 관계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분절적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생명·정서 안정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민규 기자

“집 가까운 한 곳서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16일 서구 통합건강센터 개소와 함께 첫선... 동·서구 3곳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동구와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소 기능을 진료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거점으로 전환하는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의 핵심과제다.

강기정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어린이·노인 등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광주형 공공의료 대전환'을 선언하고, 대책 중 하나로 보건소 기능을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통합건강센터 공모를 통해 동구와 서구를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자치구별 보건소·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3개 권역씩 담당하는 총 6곳의 통합건강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서구 통합건강센터로 오는 16일 개소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통합건강센터 6곳의 위치는 동구의 경우 ▲1권역 통합건강1센터(동구 서남로 1) ▲2권역 통합건강2센터(동구 밤실로 113) ▲3권역 통합건강3센터(동구 지원로 31-9)이며, 서구는 ▲1권역 상무통합건강

센터(서구 운천로172번길 32) ▲2권역 농성통합건강센터(서구 경원로 33) ▲3권역 풍암통합건강센터(서구 경원로 88, 임시 운영)이다. 다만 풍암통합건강센터는 2026년 초 풍암동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통합건강센터 운영 이전에는 이용자가 치매검진, 금연, 운동, 만성질환 상담·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시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지만, 센터 개소와 함께 이용자가 가까운 권역별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보건소의 인력 재배치와 조직 개편을 통해 각 센터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건강매니저를 신설 배치해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매니저”는 시민의 건강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측정 등 기본 검사와 생활습관 설문 등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집중관리군(A군) ▲정기관리군(B군) ▲자기역량지원군(C군) 등 관리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의료진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를 돕거나 이용자가 통합건강센터를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